

마가복음 15-16
Tape #C2526
By Chuck Smith

예수님은 이미 깊은 밤에 켈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즉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으며,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무슨 죄목으로 기소하여 로마법정에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들 에게는 죄수를 사형에 처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정부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소 내용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예수께 단도 직입적으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에 대한 참람죄 때문에 로마법정에 가서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법정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신성모독죄 (참람죄) 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고소할 적당한 죄목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 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 (15: 1)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정부에 고소한 죄목은 로마정부에 대한 반란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로마법정에 세워 사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형죄에 해당 하는 반란죄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 변호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 그러나 예수님 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 (15: 6)

여기에서 명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유월절이었으며, 유대 백성들의 요구로 죄수를 풀어주던 전례는 로마정부의 전례였습니다. 그 때, 폭동을 일으켜 살인을 한 폭동들과 함께 바라바 라는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 날, 이 특별한 유월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전례대로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러라. 그러나 대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쩍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15:9-15)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에 대하여 언급한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느껴서 성경의 무오성에 도전하려던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즉 그때까지 발견된 고대 로마의 문서들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총독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순들을 발견해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경은 결코 존재 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을 실고 있으므로 믿을 만한 기록이 못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의 유대 총독은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기록에도 없으므로 성경의 기록은 허위이며, 따라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선언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출판사들은 소위 이들의 발견 내용들을 출판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고고학적 발굴 이 계속됨에 따라 그들은 우연히도 이주 흥미로운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에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의 이름과 그의 공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성경 비평학자들과 성경의 기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망치로 아무리 내리쳐도 끄떡없는 모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모루를 열심히 내리 친 망치는 찌그러지고 닳아 쓸모가 없어져 옆으로 던져집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이 왕성하게 계속되고 있는 지금에는 빌라도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실제 인물이었음이 완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 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며 성경을 불신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문들이, 성경을 불신임할 만한 건덕지가 있거나 하면 대서특필하면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꼬리 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살금살금 도망을 치면서, 사람들이 빌라도가 실재인물이 아니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 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 : 7) 고 예언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에 모인 유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 때문에 그곳 에 모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 즉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은 바라바 의 석방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라바 의 죄목은 반란죄였습니다 . 반란죄는 유대인들에게서 악하거나 나쁜 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반란의 문제는 로마정부가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부딪혔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하던 많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으므로 반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자신들의 나라를 점령한 것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점령지들에 대항하여 항상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잡혀 있던 바라바는 감히 로마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

으킨 자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구경하려고 모였다고 보다는,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들의 민족적 영웅인 바라바를 석방하게 할 목적으로 모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재판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 군중들의 변덕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던 군중들이, 이제 며칠 지났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서로 전혀 다른 두부류의 군중이었지, 같은 군중의 변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사형당할 처지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살인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한 것은 그의 죄가 다소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한 것은 그의 반란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으로서 그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한 반란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 대신에 무법한 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실로 슬픈 선택이요, 법 보다는 무법을 선택한 사람들의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해야만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하여 방향성을 알려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으로서 매우 보기 드문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빌라도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는 문제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사기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광대극이었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부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라 불리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기도 한 이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리는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 즉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 관으로서 내가 내리는 판결이 나의 운명을, 나의 영원한 처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편리의 정의로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잘 못된 줄 알면서도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에게 압력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강한 압력이 들어올 때, 옳고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내 지켜나가기보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빌라도는 군중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채찍질은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사실 이 채찍질은 로마정부에 의해 행해지던 가장 가혹한 형태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로마시민으로서 죄인된 자들에게는 정식 재판없이 이 형벌의 집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채찍질은 죄수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옛날의 고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수에게 뜨거운 불빛을 계속 비취대며 밥도 먹이지 않고, 손톱을 뽑고, 귀에 구멍을 뚫고, 뺨을 때리면서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탈진하게 하여, 마침내 그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여 진술서에 서명하게 하는 심문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정부에 의해 행해진 채찍질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수를 기둥에다가 붙들어 매어 그의 등허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납조각과 유리조각이 들러붙어 있는 채찍으로 죄수의 등을 39 번 갈김으로써 문자 그대로 죄수의 등허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죄수가 채찍질 당하는 동안 그 옆에서는 항상 서기관이 대령하여 죄수가 비명을 지르면서 자백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강한 채찍질이 등허리에 가해질 때마다 비명과 함께 자백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채찍질의 강도를 점점 줄여가며 자백을 다 받아내고서는 죄수를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당시 로마정부가 식민지의 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채찍질은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정신이상이나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백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찍을 치는 자는 죄수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여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백할 것이 없었으므로 그 흉악한 채찍을 남김 없이 다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 일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갔는데 그 곳은 총독 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군대를 거기에 집합시키고 예수께 왕의 의복 색깔인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뒤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관이라고는 가시관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가시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영정귀를 낼 것이라” (창 3 : 17-18)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저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을 예수께 씌운 것이 너무도 적합하게 들어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예수님은 이전에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얼굴을 가린 채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 보아라. 우리에게 예언해 보아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하면서 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재미있어서 큰소리로 웃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 고나가니라(마 15 : 20)

그들은 실컷 재미있게 즐기고 난 후 그들의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 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창 같은 무거운 물건을 자기가 갖고 가기 싫으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의 어깨 위에 자기의 짐을 얹어 놓고는 따라 오라고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에 로마 군인을 만났는데, 그 로마 군인이 자기의 창을 우리의 어깨에 얹고서 “나를 위해서 이 짐을 들고 1 마일을 가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아직 남아 있지만 당시 유대에는 로마정부가 설치해 놓은 이정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군인에게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그 짐을 지고 1 마일을 가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1 마일 거리의 봉사만을 의무규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1 마일이 지나자마자 그 짐을 던져버리고 가도 법적으로 잘못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을 염두에 두시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1 마일) 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 (2 마일) 를 동행하라” (마 5 : 4) 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른 남자 어른 유대인들이 전세계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처럼, 틀림없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게도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강하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 일로 인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 1:1 에 ‘니게르라하는 시몬’ 이 나오는데, ‘니게르’ 는 아프리카출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 1 차 선교여행에 선교사로 파송한 안수받은 장로들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의 아들들인데, 성경에는 ‘루포’ 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던 시몬의 존재를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가능성을 뒷 받침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추적하면서 추측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끌고 끌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15:22)

이 곳이 해골의 곳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 문과 헤롯 문 사이의 예루살렘 성벽을 가로질러 보면 절벽 한 부분이 황폐해져 있는데, 이 곳이 고대에 채석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 많이 채취된 결과, 그 부분이 우연히 해골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끌고다’라는 지명이 울퉁불퉁한 절벽의 표면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곳이 ‘해골의 곳’ 이라고 불리웠던 또 다른 이유는, 그 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아마도 많은 유대인 죄수들을 십자가로 처형했던 장소였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고서 죽을 때 까지 거기에 그냥 놔두었었는데, 어떤 죄수들은 죽는 데 6 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출혈과 영양실조로 아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체를 절단하여 땅에 버려두어, 개들과 새들이 와서 사체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처형을 당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개들과 새들이 살을 다 뜯어먹고 남은 해골들이 많이 덩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끌고다’, 즉 ‘해골의 곳’ 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번째로 든 이유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실로 오늘날도 그 절벽의 한 부분은 아주 인상깊게도 해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곳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15:23)

당시 예루살렘에 한 여성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선단체로, 이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섞어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형장에 온 죄수에게 먹였는데, 이것은 마취 효과를 냈으며, 죄수들을 마비시켜서 십자가 처형의 극심 한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죄수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의 세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순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으신 방법 그대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니중에 돌에 맞아죽거나, 십자가 에 매달려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불에 타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님은 이들의 고통을 체휼하기 위하여, 그리고 같은 고통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후에 주님을 위하여 같은 고통과 고문을 겪을 자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 위해서, 그 마취용 음료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15:24)

어떤 자는 예수님의 신발을, 어떤 자는 허리 띠를, 어떤 자는 겹옷을, 어떤 자는 머리에 두른 수건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솜씨 좋은 손으로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찢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 옷을 찢어가지면 누구에게도 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 (15 : 25)

제삼시는 아침 9 시를 가리킵니다. 낮은 아침 6 시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은 오후 6 시부터 시작됩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 (26 절) 당시에는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으면 자신이 직접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 때 4 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행했는데, 한 군인이 그 죄수의 죄목이 쓰여진 패를 들고 앞에서 걸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법정에서 형장까지 급히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내를 천천히 돌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특히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사형장까지 천천히 갔습니다. 맨 앞의 군인은 ‘이 죄인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적힌 패를 들고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성내를 통과하여 형장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인 ‘유대인 의 왕’ 이라고 쓰여진 죄패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윗 부분에 달아놓았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15 : 27)

여기에서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사 53:12) 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 하고” (15:29-3)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19) 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이 헤롯이 지어 거의 완공단계에 있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예수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 겠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헐어버렸으나, 즉 죽였으나, 예수님은 삼 일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즉 삼일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 10 : 18) 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동양에 가면 동양 사람들의 열기와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 감정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들을 파는 가게에 가 보면 주인과 손님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발을 구르기도 하고, 손을 휘젓기도 하며, 머리를 마구 흔들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본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칼을 빼어들고 서로 죽이려고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서로

소리지르는 것과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머리를 마구 흔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정열적인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격한 감정으로 머리를 흔들며 욕설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15: 31)

그들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은 구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들, 절름발이었다가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된 자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등,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증거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참 재미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결백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한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빌라도에게 협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빌라도는 아마도, “너희 유대인들아, 썩 꺼져라” 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에게도 결백을 호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감정의 파고는 높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서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겹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겹을 가지는 자는 겹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 52-53) 고 말씀하신 것을 당장에 시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 이 악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하라고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구했는데 자기는 구하지 못했다는 대제사장들의 말에는 일종의 역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체로 보면 옳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했다면 자기 자신은 구하실 수 없었습니다. 역으로, 만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하시려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구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했는데 자기는 구하지 못했다’ 는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같이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15: 32)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박힌 자 중 하나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구시 까지 계속하더니 .” (15: 33)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때가 제삼시, 즉 오전 9 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육시가 되었는데, 제육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이 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이기 시작하여 제구시까지, 즉 오후 3 시까지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대낮에 온 땅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식으로 인한 일시적 어둠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유월절이었으며, 만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만월 때에는 태양과 달이 서로 반대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낮의 어두움이 일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던 무서운 범죄를 보지 않기 위하여 마치 하늘이 얼굴을 가린 것과 같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 시까지 어두움이 천지를 덮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큰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의 언어 그대로 기록된 곳은 이주 드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원래의 언어 그대로 기록되지 않고, 대부분 헬라어로 번역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이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고 외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아, 엘리아” 라고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시편 22 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는 항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온 세상의 죄가 실려졌을 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모든 친교와 공존과 하나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분이,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영광 을 함께 누리셨던 분이, 하나님이 그분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올려놓으시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결과들을 몸소 체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메아리처럼 따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 41) 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 8-9 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다시 한 번 실감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 웰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움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제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고 운명 하시다 .” (15: 35-37)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 10 : 18) 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책임을 지우려고 애썼던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 습니다. 그 누구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 (15: 38)

어떤 사람들은 이 휘장이 엄청나게 두꺼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 뒤로 감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하게 나아 가도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즉 길이 났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 많은 정결의식이나, 희생제사를 더 이상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사람을 위한 단회적 희생제사가 이미 드러졌습니다. 이 제사는 너무나 완전하고 충분하여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 6) 고 말씀하셨습니다 . 참으로 영광스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 (15: 39)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숨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기의 영혼에게, “영혼아, 가도 좋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의 생명을 버리실 능력 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 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 (15: 40)

이 여자들은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상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막달라’ 라는 지명으로 다른 마리아와 구별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로부터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는데, 물론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알패오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 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15: 41)

이 세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도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이 여자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옷도 꿰매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세 여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그들의 일상생활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일에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 그리고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 곧 인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15 : 42)

예수께서 오후 3 시에 운명하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세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드는 등 일을 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대비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 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기 전에 시신과 다른 모든것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으매 때에 막 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5: 43-37)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근처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졌습니다. 골고다 바로 근처 모퉁이에서 옛 동산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산에 물을 대던 우물도 발견되었으며 물론 거기에는 무덤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으로는 이 무덤이 예수님이 실제로 3 일 밤 3 일 낮 동안을 누워 계셨던 바로 그 무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무덤 속을 걸으면서 이 곳이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이 3 일 밤 3 일 낮 동안 눕혀져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며 몽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무덤 앞에는 작은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이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굴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무덤을 막던 돌이 없습니다. 돌을 굴렀던 길의 흔적들이 나 있을 뿐입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낸 뒤, 좋은 세마포를 사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매고는 그 무덤에 누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시체들에게 하던 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세마포로 아주 세심하고 잘 싸여졌습니다.

마가복음 16 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기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16: 1-7)

우리는 여기에서 최초의 부활절 아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러 막은 사실은 15 장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덤 엽구를 막은 돌 문에서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개념이 암시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거짓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 : 18)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던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 즉 억압받던 자들을 도우신 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 절름발이의 발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신 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일 등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는 바를 본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였으며, 잔인한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 그 시체를 무덤 속에 넣고 돌을 굴러 그 무덤 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문 뒤에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돌문 뒤에는 죽은 종교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종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종류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을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속의 종교를 거부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람이 일단 한 번 죄를 지어 잘못하면 그에게는 구속의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형벌제도는 이제 어떤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주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교정연구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에 의해 참으로 많은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이것을 형벌연구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회학의 영향으로 교정연구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문제는 오직 그들의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려면 그에게 적당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5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 중 1천여 명을 상대로 표본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투옥의 전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연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었던 1천여 명의 죄수들 중에서 교정연구소를 통하여 사회에 잘 복귀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출소하고 얼마 안되어 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성공적인 경우가 이렇습니다. 사법부와 경찰의 연구소들이 내어놓는 많은 책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사람을 교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헬라의 철학, 즉 이미 버린 사람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상, 사람이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될 희망이 없다는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 : 10)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습니다. 그 무덤의 돌문 뒤에는 ‘죽은 구속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속의 소망이 죽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한 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의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그 돌문을 치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닫힌 돌문을 그대로 통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던 집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의 돌문이 굴러진 것은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고 걱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걱정들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도착 할 때 쫓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케 할 뿐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6 : 8)

무렵에 있던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마지막 보았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패로 인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보신 때는 닭이 울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며, 그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용기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가 와서 베드로를 뻔히 노려보다가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했을 때, 베드로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바깥 뜰로 슬그머니 나간 베드로를 다시 보고서 이 소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와 한 패예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습니다. 또 잠시 후 곁에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의 말투를 쓰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 패일거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실패! 실패! 주님, 나는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오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번째 메시지에 특별히 부연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말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분명히 실패했다. 하지만 베드로야, 나는 이렇게 부활하였다. 이제 지금부터 너에게 새로운 일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해 절망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로 시작 되는 9 절부터 마지막 절인 20 절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 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원본이 아니라 나중에 사본을 베끼던 자가 첨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특이한 부분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두 개의 고대 사본인 ‘시내산 사본’ 과 ‘바티칸 사본’ 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것이 그들이 “이 부분은 가짜다” 라고 선언하는 근거입니다. 시내산 사본은 주후 400 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본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사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기록된 사본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 사본은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부분이 시내산 사본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본은 오래된 것일수록 그 신빙성이 더 큽니다. 이레니우스와 히폴레이터스는 마가복음의 이 특이한 부분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레니우스와 히폴레이터스 둘 다 주후 200 년에서 300 년 사이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사본이 제작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시내산 사본보다 더 오래 된 사본에서 이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이 부분이 성경 원본 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제작된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는 실리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수리아) 지방에서 나온 모든 사본들에는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개의 사본들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이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본들이 제작되기 훨씬 전의 사람인 이레니우스와 히포레이투스같은 훌륭한 교부들이 이 부분을 인용했다는 사실은 이 부분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6: 9)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6: 10)

이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 일이나 지난 날인데도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소망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 의해 건설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 일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절망과 슬픔 속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분은 저기 동산에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여자가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신 일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6: 14)

우리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의심이 많았던 자들이라는 사실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반박하지 못할 엄청난 증거는 제자들의 삶 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변화된 삶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 15)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전세계를 향한 명령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세계를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 16)

우리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 : 12) 고 짧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둘 중의 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이냐 저주냐?” 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을 밀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6: 17 -18)

이 표적들은 전세계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주어진 표적들입니다 . 그들이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새 방언, 새 언어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위클리프 선교회가 전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성경번역선교는 참으로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와 같이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 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귀신론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우리는 바울이 탄 배가 파선된 뒤 모든 사람들이 섬에 내려서 모닥불을 피워 불을 쬐고 있던 중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행 28 장). 그 때 그 섬의 원주민들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 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서는, 바울이 갑자기 격렬한 진통을 하며 넘어져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독 털어 버렸는데,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고 집단에서는 일종의 영적 광란 상태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는 등 신비적인 의식을 하는 중에 어리석게도 방울뱀을 들여와 서로에게 돌려 전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급진적인 목사는 교역자들을 모아 놓고 주위에 독약을 놓아 두고 그들이 과연 그 교회의 교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을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충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2 급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려보아라. 성경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4 : 5-6). 예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가서 방울뱀을 집거나 독약을 마심으로써 지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리석게도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16: 20)

표적은 결코 속임수나 현란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전파한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일으킨다고 광고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기적을 보라” 라든지, “와서 치유함을 받으라” 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표적과 이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입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표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확증해 주는 데 있습니다. 표적은 따르는 것이지,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표적을 앞세우거나 표적을 가지고 대단한 일이라도 난 것처럼 확대시키는 것은 성경이 제시한 순서를 뒤바꿔 놓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핵심입니다. 표적은 전파된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들을 통하여 비취지게 하소서. 어둠에 속한 지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인 말씀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하는 질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소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께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잃어버린바 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왕께 드리십시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분의 지팡이에 입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그 분을 섬기는 삶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실로 돌아 가십시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분께 자신의 삶의 깨어지고 흩어진 조각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떤 가치있는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속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잃어버린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그리고 기회주시는 대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형통 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